한국 '죽음의 조' 피했다

카메룬·온두라스·이탈리아와 D조에 편성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조추첨

A조	B조	C조	D조
코트디브와르	네덜란드	중국	한국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카메룬
호주	일본	브라질	온두라스
세르비아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한국 축구가 2008 베이징올림픽 본선에서 이탈리아, 카메룬, 온두라스와 8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20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 베이징 리젠트호텔에서 실시한 베이징올림픽 남자 축구 본선 조 추첨에서 이탈리아, 카메룬, 온두라스와 같은 D조에 편성됐다.

이로써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8월7일부터 친황다오에서 진행되는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8강에 오를 수 있다.

조추첨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세계 최강을 피한 한국은 같은 조에서 가장 약체로 평가되는 온두라스를 꺾고 이탈리아, 카메룬에 선전할 경우 올림픽 8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아시아 최강"

이용대(오른쪽)와 정재성이 20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시 체육관에서 열린 2008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 복식 결승에서 인도네시아 위자야 찬드라·노바 위디안토 조를 2-0으로 물리친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대-정재성 조 '금'

박성환 男 단식 우승

亞 배드민턴 선수권

한국 배드민턴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08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청신호를 밝혔다.

남자단식 기대주 박성환(세계 12위·강남구청)은 20일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열린 2008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세계랭킹 4위인 중국의 첸진을 2-0(21-18 21-18)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또 한국은 남자복식 결승에서도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성전기) 조가 인도네시아의 위자야 찬드라-노바 위디안토 조를 2-0(21-16 21-18)으로 꺾고 우승했다.

지난 달 전영오픈과 스위스오픈을 석권했던 이-정 조는 아시아선수권대회마저 휩쓸어 베이징올림픽 메달 획득에 큰 기대를 걸게 됐다.

박지성 10경기 출전…챔프 메달 자격 OK

종료 직전 루니와 교체 투입

맨유, 블랙번전 1-1 무승부

'산소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무릎 수술의 악재를 딛고 성공적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한 뒤 마침내 정규리그 10경기째 출전해 당당하게 이번 시즌 우승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자격을 따냈다.

박지성은 20일(한국시간) 새벽 치러진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블랙번 로버스와 원정경기에 후반 종료 직전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느낀 웨인 루니와 교체투입돼 4분 정도 그라운드에 섰다.

교체출전한 그가 눈에 띄게 활약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이날 출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만약 맨유가 시즌 정상에 오를 경우 우승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자격요건(정규리그 10경기 이상 출전)을 채웠기 때문이다.

2006-2007시즌에도 부상이라는 악조건을 속에서 14경기(5골 2도움)에 나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지성은 지난해 4월 무릎수술을 받고 9개월 재활기간을 힘겹게 견뎠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선덜랜드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른 박지성은 지난 1월 버밍엄전에서 시즌 첫 번째 선발출전하면서 부상에서 회복됐음을 선언했고, 지난 3월 풀럼전에서 짜릿한 헤딩슛으로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전남도민체전 내일 고흥서 팡파르

18개 종목 선수단 5천700여명 열전 4일 돌입

200만 전남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인 제47회 전남도민체전이 22일 '우주항공도시' 고흥군에서 개막돼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고흥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에서 육상, 축구, 배구 등 18개 종목에 걸쳐 5천700명(임원 1천964명, 선수 3천853명)의 선수단이 참가, 기량을 겨룬다.

'함께하는 우주의 꿈, 하나되는 전남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지난해 우승한 여수시가 2연패를 노리는 가운데 순천, 광양, 목포등이 종합 1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지난해 50% 채점에 그쳤던 태권도 여자부가 100% 성적에 포함되며 볼링 남자 3인조전, 5인조전, 개인종합과 여자부 2인조전, 3인조전, 개인종합으로 각각 확대 운영된다.

대회는 고흥공설운동장을 비롯해 팔영체육관 등 22개 보조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개막식은 22일 오후 6시 도민, 선수 등 2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공설운동장에서 선수단 입장, 개회 선언, 대회기 게양, 성화점화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월포농악, 모터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을 시작으로 풍고 퍼포먼스, 전자현악& B-BOY 희망콘서트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연예인 초청 축하공연이 축제분위기를 한껏 고무시키며 도민 화합을 기원하는 불꽃놀이가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최연소 선수는 박소정(13·완도) 양으로 태권도에 출전한다. 최고령은 정구에 출전하는 전복실(77·장성) 옹이다. 또한 일반부 탁구에 출전하는 오국탁(화순) 씨는 지난 1976년부터 33년동안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도민체전에 출전하고 있다.

태극마크를 단 김영훈·최복음·장동철(광양)조는 볼링에서, 유광선(여수)은 유도에 출전, 고장의 명예를 위해 한 수 높은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

한국양궁 '흔들'

월드컵서 금 1·동 3 그쳐

한국이 국가대표 1진이 참가한 2008년 2차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건지는 데 그쳤다.

윤옥희(23·예천군청)는 20일 새벽(한국시간) 크로아티아 포레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개인 결승에서 유스티나 모스피넥(25·폴란드)을 115-110(120점 만점)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3발씩 4엔드에 걸쳐 12발을 쏘는 경기에서 윤옥희는 1엔드부터 모스피넥을 29-27로 앞서간 뒤 2, 3엔드 점수 차를 벌려 5점차 낙승을 거뒀다.

동메달 3개도 추가했다. 여자 개인 3-4위전에서는 박성현(25·전북도청)은 나탈리아 발리바(39·이탈리아)를 15-110으로 꺾었다.

국내 선수들끼리 맞붙은 남자 개인 3-4위전에서는 임동현(22·한국체대)이 박경모(33·인천 계양구청)를 114-113으로 눌렀다. 한국은 여자 단체전에서도 영국을 216-192로 누르고 동메달을 추가했다.

장원배 전국 중·고 정구대회 23일 개막

한·중·일 주니어대표 선발 겸해

45개팀 동신고서 6일간 총력전

제13회 장원배 전국 중·고 정구대회 겸 제16회 한중일 주니어 경기대회 파견 한국대표 2차 선발전이 23~28일까지 6일간 광주동신고등학교 정구장에서 개최된다.

학교법인 동강학원과 한국중·고정구연맹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정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대회에는 금호중등 남중부 14팀, 여중부 12팀, 남고부 10팀, 여고부 9팀등 총 45개팀이 출전, 기량을 겨룬다.

이번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여중부 신광중(광주), 남고부 동신고가 각각 여중, 남고부 우승을 노리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금호중, 신광중, 광주동신고등 4개교가 출전하고, 전남에서는 옥곡중, 순천삼산중, 고흥점암중앙중, 순천여중등 7개교가 출사표를 던졌다.

개회식은 오는 23일 오후 3시30분 광주동신고등학교 정구장에서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시즌 첫 2연승 9위…광주 10위로 '뚝'

주말과 휴일 전국 7개 구장에서 펼쳐진 프로축구 6라운드 경기에서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수원 삼성이 20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천적'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신영록과 에두의 골로 2-0으로 이겨 컵대회 3승을 포함해 쾌조의 7연승을 달리며 선두에 복귀했다.

FC서울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3위 자리를 지켰다.

이날 수원의 승리로 지난 19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대전 시티즌을 3-0으로 제압하며 선두에 올랐던 성남 일화는 하루 만에 1위 자리를 내주며 2위로 내려앉았다.

한편 지난 19일 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광주 상무의 승패가 엇갈리면서 두 팀의 순위가 바뀌었다.

전남 드래곤즈는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벌어진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에서 2-1로 이겨 시즌 첫 2연승을 달리며 9위에 올랐다. 반면 광주 상무는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조재진의 기세에 눌리며 2-3으로 역전패 당해 10위로 떨어지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전남의 뒤를 쫓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

스포츠 주개

21일 (월)

▲2008 메이저리그 〈뉴욕M : 필라델피아〉(08 : 55·XPORTS)